

# 정유업계, 'AI·DX' 혁신 가속... 청정 에너지시대 발 맞춘다

## HD현대오일뱅크

AI 기반 구매 프로세스 디지털 전환 SK이노베이션 '오션허브' 사업화 GS칼텍스 업무 전반에 DX 적용 에쓰오일 통합 IoT 플랫폼 구축

전통적인 '굴뚝산업'으로 불리는 정유업계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절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시대를 맞아 공장에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가 디지털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품 개발·생산 등에 AI를 적용해 비용을 절감은 물론 생산성과 안전성까지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정유사들은 외부 시스템 대신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SW)에 AI를 적용해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등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SK이노베이션이 'AI 비파괴검사(IRIS) 자동 평가 솔루션'으로 열교환기 결함 검사를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는 AI CCTV 활용하여 여수공장을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 /GS칼텍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반 맞춤형 플랫폼을 업무에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자체 개발한 'AI 기반 자재 구매 분석 플랫폼'을 통해 구매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HD현대오일뱅크의 자체 빅데이터 플랫폼을 바탕으로 공장 정비에 필요한 자재들의 구매 이력·입찰 정보·시장 동향 등 방대한 정보를 종합한다.

공장의 배관 교체가 필요할 경우 AI가 유사한 원자재를 추천하고 가격 추

이·업체별 경쟁력·견적 등도 분석해 최적 안을 제공한다. 기존 구매 절차 대비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 리스크를 줄이고 속도는 높일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복합화학(C-LX)에 자체 개발한 설비 관리 시스템인 오션허브(OCEAN-H)를 구축해 사업화에 성공했다. 오션허브는 정유·석유화학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지난 60여년간 SK이노베이션이 축적한 데이터를 다양한 상황에

활용한다.

오션허브는 정유사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기에 동종 업체들에 판매돼 비즈니스 모델로도 기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수스페셜티케미칼, KP케미칼, SK케미칼 등 울산 지역의 5개 회사에 플랫폼을 판매에 약 3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GS칼텍스는 허세홍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난 2019년부터 시범 도입한 디지털 전환(DX)을 업무 전반으

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여수공장의 전 업무 영역을 DX 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원유 가격 전망, 구매, 물류, 판매, 시장 예측 등 수많은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를 정량화해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에쓰오일도 부산 관리·운영하던 센서를 하나로 모아 통합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고 AI로 데이터를 분석해 유지·보수 비용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에쓰오일은 IT 신기술을 바탕으로 전사적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디지털 공장, 디지털 마케팅, 스마트 워크 등 3개 영역에 대한 디지털 전환 핵심과제를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3년간 생산성 증대, 비용절감 등 지속적인 효율성 개선을 위한 2단계 디지털 전환 전략을 추진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AI 도입을 통해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고용안정·복지혜택 강화... '성과연동형 임금체계' 관건

## 기아 임단협 찬반투표

2차 잠정합의안 채택 여부 결정 기본급 인상 등 성과 보상 최대 수준

기아 노사가 올해 임단 및 단체협약(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8일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투표는 '평생 사원증 혜택 복원'과 '성과연동형 임금체계 도입'이 합의안 통과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지난 2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제11차 본교섭에서 '2024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4년 연속 노사분규 없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무과업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는 유독 임단협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에는 1차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에 더해 출산휴가를 기



기아 광명 오토랜드 공장.

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지난달 도출된 1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 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

만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이 포함됐다. 또 조립라인 등 직접 공정 수당을 현실화하고, 2025년까지 엔지니어(생산직) 직근 신입사원 500명 채용하는 등 고

용 안정 및 복지 혜택을 강화했다.

잠정합의안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은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평생사원증 혜택이 사라지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아는 2년 전까지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가 신차를 구매할 경우 평생 동안 차량 가격을 최대 30%까지 할인 해줬다. 그러나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등 평생사원증 혜택이 지나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2년 복지 혜택 연령을 75세로 제한하고 신차 구매 주기는 3년으로, 할인은 25%로 축소했다.

당시 기아 노사는 현대차도 비슷한 수준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지만 현대차의 평생사원증 혜택은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장기 근속자를 중심으로 평생사원증 제도 원복에 대한 요구가 높

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임협에 포함된 성과연동형 임금 체계 도입도 주요 변수다. 기아 노사는 일반직 매니저를 대상으로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고과 등급에 따라 기본급 인상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책임매니저(과장급) 이상은 성과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일반직 전체가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를 적용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일반직 조합원으로 구성된 일반직 노동자회는 성과연동제 도입이 결국 사측의 노조 장악력을 높이는 수단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사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생산 직군은 논의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2차 잠정합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8일 진행된다.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4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 짓게 된다. /양성운 기자 ysw@

# LS마린솔루션, LS빌드윈 편입... 통합 케이블 시공업체 새출발

시공기간 단축 등 시너지 기대

LS마린솔루션이 LS빌드윈을 자회사로 편입하며 육상과 해저 케이블 시공 역량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케이블 시공업체로 새롭게 출발한다.

LS마린솔루션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LS빌드윈 자회사 편입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편입은 LS마린솔루션의 시공 사업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LS마린솔루션은 해상, 육상 케이블 시공 통합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원가 절감, 품질 유지, 시공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이점을 확보하게 됐다.

LS전선 관계자는 "LS전선의 구분규 대표가 LS마린솔루션의 대표를 겸직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이라며 "LS전선과의 해상, 육상 전력 케이블 사업의 시너지도 한층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대부분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편입으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중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LS마

린솔루션의 올해 매출은 LS빌드윈의 4분기 매출이 반영되어 전년도 708억원에서 약 13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총액도 지난 6월 말 기준 1945억원에서 약 270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LS마린솔루션은 올 상반기 전남해상 풍력사업 참여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운 5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 역대급 매출이 기대된다. 해상풍력 시장 확대와 SOV(해상풍력 건설지원 선박) 사업 추진 등으로 내년 매출은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차현정 기자

# 현대로템, 광양항 물류 자동화 설비 사업 수주

AGV 등 830억 규모 제작·납품

현대로템이 무인이송장비(Automated Guided Vehicle, AGV) 실적 확대를 통해 첨단 스마트 물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발주한 약 828억원 규모의 광양항 자동화 부두 무인이송장비(AGV) 제작·납품 사업을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오는 2029년까지 총 44대의 항만 AGV와 관제시스템, 충전기 등 관련 인프라 설비를 공급한다.

현대로템이 공급할 AGV는 길이 16

m, 폭 3m, 높이 2.3m 크기의 대형 항만 AGV로 최대 65톤 중량의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다. 전기 구동 방식이며 고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 30분 충전만으로도 8시간을 구동할 수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고품질의 설비들을 적기 납품해 스마트 항만으로 거듭날 광양항의 안정적인 운영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항만은 물론 스마트팩토리 등 물류 자동화 설비 시장 공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